

소박한 곁장을 열면 조출한 생애가

가난하지만 책과 함께 의종았던 젊은부부

이혜숙

소설가

나의 부모님께선 작은 남동생 집에서 말년을 보내셨다. 작은 동생의 책이 직장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 살림과 손자들 뒤를 거두어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 무렵 부모님을 뵙기 위해 동생네 아파트에 가면 아버지 혼자 집을 보고 계신 적이 종종 있었다. 어머니께선 자꾸 밖에 나가자고 조르는 어린 손주 둘을, 하나는 업고 하나는 걸려서 집 근처로 바람을 쏘이러 나가셨거나 시장엘 데리고 가신 것이다.

그럴 때면 거실 한 귀퉁이의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책 한권이 펼쳐 있고 그 위에 어머니가 쓰시는 동그란 뿔테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곤 하였다. 그 광경은 내게 조그만 몸집의 어머니가 거기 놓인 돋보기를 쓰고 펼쳐놓은 책 위에 등을 동그랗게 구부린 채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켜서 비록 어머니께서 당장 내 눈앞에 계시지 않더라도 친정에 왔다는 정답고 안온한 느낌을 갖게 해 주었다.

돋보기 없고 해바라기 하던 책

하지만 그 무렵에 어머니께서 책을 읽으실 수 있는 시간은 실상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침 일찍 치장하고 집을 나서기만도 바쁜 머느리 대신 집안 살림 하시라 손주들 보시라 게다가 성품이 그다지 녹지지 못하셨던 남편 시중 드시라. 언제 차분히 앉아서 책 읽을 시간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시던 책은 읽혀지고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어머니 대신 돋보기를 얹고 거실 양쪽에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선 책 읽기를 좋아하셨다. 그때 우리가 살던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찌다 화투치기에 맛을 들여서, 남편은 회사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비어있는 낮 시간에 후닥닥 집안 일을 해치우고는 한 집에 모여앉아 내기화투들을 쳤다. 어머니도 동네분들과 어울리는 맛에 더러 그런 자리에 끼신 적이 있지만 곧 싫증을 내고 돌아오시곤 했다. 다른 아줌마들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지 화투는 영 재미가 없다시면서.

거실 한귀퉁이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책이 한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어머니가 쓰시는 동그란 뿔테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다. 그 광경은 어머니가 당장 내 눈앞에 계시지 않더라도 친정에 왔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남들은 나더러 낮에 혼자 빈 집을 지키려면 심심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난 혼자 있어도 책 한권만 있으면 심심한 줄 모르겠더라.

책 읽기가 유일한 취미이기는 나도 어머니나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그때 나는 어머니의 그런 얘기를 그저 심상히 들어 넘겼지만, 어머니께서 책읽기에 재미를

붙인 데에는 그 나름의 멋진 사연이 있었다.

어머니께서 국민학교에 다니신 것은 일제시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여성들의 교육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라 대다수의 여자애들은 국민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 되게 마련이었다. 기껏해야 은행 같은 데에 취직하기 위해 여상에 진학하려는 소수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졸업반이 되자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따로 모아 주산과 부기 따위를 가르치면서 대다수의 나머지 아이들은 그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놀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식의 차별 대우에 분개한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는 척하고 열려 있는 교실 창문으로 공을 던져 넣거나 수업하고 있는 교실 바로 위의 교실에서 청소를 한다고 책상 걸상을 이리저리 밀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했다. 말하자면 집단항의였던 셈이다.

그때 아이들의 똥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 즉 “책 속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들어 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학교 공부를 더 하지 않더라도 세상 이치를 훤히 아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어머니로 하여금 평생토록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생 책 만드는 사람

어머니께서 평생을 ‘책 읽는 사람’으로 보내셨다면, 아버지께선 평생동안 ‘책을 만드는 사람’이셨다. 아버지께선 젊은나이에 첫 직장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한 출판사에 생애의 대부분을 바치셨다. 외솔 최현배님의 아드님이 첫 설립자였던 그 출판사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양서만을 출판하는 곳이었기에 아버지께서도 평생의 직장으로 선택하셨으리라 생각한다.

내 기억으로는 수십권의 세계문학전집을 시리즈로 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계 각국 문호들의 작품을 고루 섭렵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도 그 출판사가 처음이 아니었던가 한다. 단지 처음이라는 의미 말고도 그 내용의 충실함 또한 다른 출판사의 모범이 되었다. 아버지께서 그



일러스트레이션 / 노희성

‘인간’이 상실된 현대의료의 해부

《하버드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기까지》를 읽고

조병희 ·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문학전집의 출판에 책임을 지고 온 힘을 쏟아부으시던 무렵에 나는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 집에 오셔서까지 밤늦도록 노심초사하던 모습은 아직도 내 기억에 선명하다.

지금부터 삼십년도 훨씬 전이었던 그때는 일본글을 빼놓고는 외국글을 번역하는데 능숙한 분들이 드물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역이 많았고 뜻이 통한다 하더라도 문학작품으로서의 문장의 맛을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아버지께서는 책 편집의 책임자로서 가능한 한 정확하면서도 본래의 뜻과 느낌이 살아있는 번역서를 만들어내려고 번역자가 만들어온 원고를 집까지 들고 오셔서 일일이 원서와 대조해 가며 오류를 바로잡으려 최선을 다하셨다.

아버지 역시 어머니처럼 일찍 아버님을 여의신 형편이라 학교교육을 많이 받을 수는 없었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가며 독학으로 쌓은 일본어 실력만은 보통사람이 따라오기 힘든 수준이었고, 처음 출판사에 발탁이 된 것도 바로 그런 남다른 능력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도 번역수준이 뛰어났던 일본의 번역서들을 참고해가며 국내 번역자들의 번역원고와 원서를 대조해 봄으로써 잘못된 번역을 짚어내었던 것이다.

밤낮 없이 잔 글씨들을 들여다보느라 안질까지 걸리셨던 것도 기억난다. 당신이 맡으신 일에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책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시던 성품이 그토록 좋은 책만들기에 온 생애를 바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평생을 책을 벗삼아 의종계 사신 두분은 지난 해 늦가을에 별 다른 고통 없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세상을 떠나셨다. 남들의 추앙을 받거나 부러움을 살 만큼 위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항상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신 조출한 생애였다. 마치 장정이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걸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는 좋은 책처럼. ❖

병원에 갔을 때, 특히 큰 종합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기다림과 불친절이다. 이에 대하여 의사들은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한다. 그러면 의료수가만 올리면 병원은 천국이 될 것인가? 대답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보다 본질적인 현대의료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은 미국에서 한 외과의사가 암에 걸려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는 그 병원의사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환자로서 줄서서 기다리며 치료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그는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병원직원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의료진의 비인간적인 진료태도에 경악하게 된다. 이것은 ‘닥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의료의 비인간화는 현실에서도 사실로 나타난다. 현대의료기술의 발달이면서 ‘인간’은 상실되고 병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멜빈 코너는 인류학자의 길을 걷다가 뒤늦게 의학공부를 하게 되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발병과정이나 치유과정에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한 예로 가족이나 동료, 친구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정신적·물질적·사회적 지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책은 저자가 의과대학에서

임상훈련받을 때의 경험을

적은 것이다. 수많은 병과

환자를 접하고, 그 대처방법을

전수받으며 정해진 코스를

따라 ‘유격훈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의대생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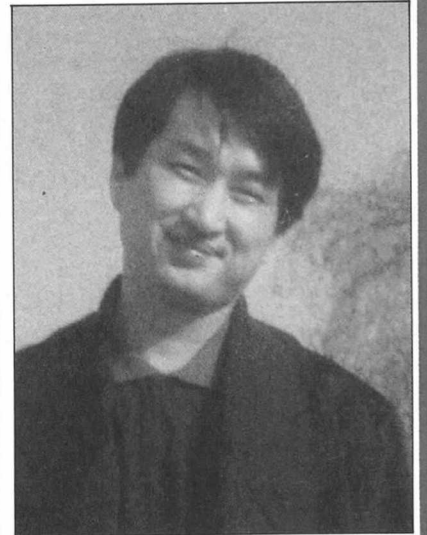
태도 대신에 생물학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양식을 갖게 된다.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보다 많은 병에 걸리고 치유도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는 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십상이다. 또 역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병으로 전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의료는 다른 모든 요인은 제거하고 오로지 병 자체의 생물학적·병리학적 기전만 관심을 가진다. 즉 환자는 인간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얼마든지 냉정하고 비인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의과대학 상급학년에서 임상훈련을 받을 때의 경험을 기술한 것이다. 수많은 병과 환자를 접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상급의사로부터 전수받음으로



조병희 교수.

써 한명의 의사가 만들어진다. 그 기간동안 의대생들은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할 틈이 없이 그 과정에 몰두하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야만 한다. 이러한 2년에 걸친 ‘유격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의대생들은 의대입학시 가졌던 이상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태도 대신에 생물학적인 세계관과 권위주의적인 행동양식을 체득하게 된다. 코너는 이 의사되기 과정을 마치 해부하듯이 기술하고 있다.

코너는 의학교육의 이러한 문제들이 보다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 책은 단지 의사되기 경험만을 서술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지는 숙제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한다.

의사와 환자가 인간으로 만나서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치료에 대한 확신을 환자는 물론 의사도 가지게 될 때 의료의 비인간화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부쉬맨 사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치유의식에서 황홀경에 빠져 안수를 받을 때 치유자와 환자가 합일하여 치료에 확신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과정이 현대의료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

멜빈 코너 지음/이종찬 의 옮김
명경/A5신/510면/15,000원

